

# 광주서 '챗GPT' 뛰어넘는 AI 모델 개발 가능해진다

### 데이터센터, 국내 최초 엔비디아 초고성능 컴퓨팅자원 H100 제공 3배 이상 높은 연산 능력 자랑...빅데이터 수집·분석·가공 서비스도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뛰어넘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인 엔비디아의 'H100'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을 크게 뛰어넘는 대용량 메모리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등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AI스타트업들도 복잡·다양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AI 데이터센터에서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에서 출시한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인 'H100'을 제공한다.

엔비디아의 H100은 '챗 GPT' (4.0) 개발에 활용된 컴퓨팅 자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연산량을 갖추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로,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며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올 하반기 H100 제공에 앞서 이달부터 AI 분야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인 엔비디아의 A100 최신 버전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 A100'은 H100과 함께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으로 꼽힌다. 엔비디아의 H100(67 테라플롭스)은 A100(19.5 테라플롭스)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연산

량을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으로, 1 테라플롭스(TF)는 1초에 1조 개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속도다.

MS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가 확산되고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초고성능 H100이 제공되면 국내 AI 기업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앞당기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희망하는 AI 기업은 'AI 통합 지원 서비스 플랫폼 (www.atops.or.kr)' 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달부터

제공하는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인 최신 A100을 활용하면 AI 스타트업들도 복잡한 AI 모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H100은 최신 A100 보다도 3배 높은 연산량을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으로,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비즈니스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스템 설치, 시험 운영을 거쳐 총 구축 용량인 88.5 페타플롭스(PF)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개소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4주년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1일 오전 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금당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및 대성여자 학생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토지 분양·민자 유치 탄력

### 전국 최초 일부 준공승인...행정절차 간소화로 투자여건 개선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일부 시설부지가 분양 전 준공 승인을 받아 향후 토지 분양 및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11일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그동안 지속해서 협업에 나선결과 총 507만3000㎡ 중 273만3000㎡의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을 시작한 지 32년만으로, 관광단지가 분양 전 시설부지가 대규모 일부 준공 승인된 것은 2009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 시 분양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과 금융권 대출 편의 증진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타 관광단지보다 민간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승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53.9%로 임시 사용 중인 골프장(27.1%)까지 합하면 전체면적 대비 81%에 해당한다. 이번 준공승인에서 제외된 지역은 공유수면 지역으로 향후 추가 매립 후 분양 및 개발 예정이다.

해남 화원면에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개발 사업으로 2009년 8월 기반 조성 공사를 준공했다. 현재 바다에 인접한 27홀 대중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따뜻한 기후로 사계

절 운영되는 축구장은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40면, 21만4000㎡ 규모 캠핑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9월엔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120실 규모의 4성급 오시아노 리조트호텔이 개장 예정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김기흥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단지 내 개발행위 등 모든 민원이 윈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김상목 DJ센터 사장 직위 해제

### 노조, 지난해 갑질·비위 의혹 제기...감사위, 감사 결과 경찰에 고발

광주시는 11일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직위 해제했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등으로 미뤄 김 사장이 정상적으로 센터 운영을 총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정기 감사를 거쳐 특정 업체에 전사권을 무상으로 빌려줘 센터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김 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조는 지난해 10월 폭언 등 갑질 행위와 비위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김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

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올해 초 측근 중심의 내부 인사를 통해 '편가르기' 등 조직 분열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한 직원은 "올해 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전보 인사를 강행해 직원간 내부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 사장이) 능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직원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측근 중심의 잘못된 인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제조업 창업시 기획·판매 전 과정 지원

### 광주시 '메이커활성화지원사업' 선정...국비 6억원 확보

광주시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 창작공간 조성·운영을 통한 체계적·단계적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체계적·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기기를 제공해 제작자(메이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학교를 대표기관으로, 제조 연계 전문기관인 '모노스케일'과 '플리마코 협동조합'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전남대는 제품

기획부터 시장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다 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연계 전문기관인 '모노스케일'을 통해 제품을 양산하며, '플리마코 협동조합'이 마켓팅 및 판로를 지원한다.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제품기획 ▲시제품제작 ▲시장검증 ▲소량양산 ▲판매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해 효과적인 분업과 촘촘한 프로그램 설계로, 제작자(메이커)의 안정적인 제조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예비창업자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제품 개발·제조 경험 부족으로 사업화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메이커활성화지원사업 협업형 모델을 통해 지역 제조창업기업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정읍 유야숲 체험원

봄 향기 가득한 정읍에서 멋진 날...

내장산 우화정

무성서원

정읍시 JEONGEUP-SI